



청소년 드라마로 들여다 본 교실은...

어찌든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청소년 드라마는 자녀의 학 교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후 역이나 자녀가 전하는 겨우 몇 마디만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의 교실 속 현실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박진규(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지난 7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와 KBS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교육이 주무인 정부부 처와 방송사가 협조할 일이 뭔가 공극해서 알아보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 적으로 올겨울에 방송될 청소년 드라마를 함께 제작 하기로 했다는군요. 텔레비전 드라마가 학교 폭력 에 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이렇게 내놓고 “가르치려 드는” 드라마에 창작 학생들은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의심스럽지만, 정부와 방송사가 나서야 할 정도로 이 런 드라마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진 진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장르를 흔히 '청소년 드 라마'라고 부르는데요, 시훈기를 앓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았다고 해서 '성장 드라마' 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찌든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청소년 드라마는 자녀 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추억이나 자녀 가 전하는 겨우 몇 마디만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의 교실 속 현실을 짐작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구 세계를 그리는 드라마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을 먹고 사는 드라마는 허구와 실제 사이의 교묘한 긴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분위기나 교실 속 학생들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드라마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1970년대의 <알개> 시리즈처럼 고등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있었지요. 당시 서슬 퍼런 독재정권 속에서 병영 을 꼭 빼놓은 학교와 까만 교복 속 청소년들의 소소한 일과와 이성 교제를 유쾌한 톤으로 그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까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 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권이 과외나 임시학원 등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규제한 시기였는데,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은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나마 교육에서의 표면 적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때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텔레비전 드라마는 청소년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드라마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방송된 <사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TV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배우 정준이 어수룩하면서도 귀여운 주인공을 맡았고 주현과 선우는 속이 아빠와 엄마 역할을 했지요. 춘천을 배경으로 중학생들의 삶을 잔잔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려 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사춘기> 속 청소년들은 너무나 순수해 보입니다. 신체적 변화, 이성에 관한 관심, 그리고 성적 고민 등 전형적인 사춘기의 징후를 보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곁에는 항상 친구와 가족이 있고 그들과 함께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된 <나>라는 작품도 꽤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한 남녀공학 고등학 교 방송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였지요. 지금은 스타가 된 최강희, 김태 윈, 안재모 등이 풋풋한 학생으로 출연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두발,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 는 등 학교 내 병영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정착되 어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 드라마 <나>가 보여주는 학생들의 고민은 주로 관계성에 있었습니다. 선후배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주된 화두였지요. 학교 방송반을 중심으로 자 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우쳐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를 담아냅니다.

가장 최근에 청소년을 다룬 드라마는 <유령>일 겁니다. 이 드라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배경으로 한 미니시리즈로서, 청소년 드라마는 아니지만 7, 8회에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요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학생들의 자살을 함께 겪어냈는데, 학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이렇습니다. 명문대뿐 아니라 외국 유명대학에까지 학생을 배출하는 최고 학교인 '상연고'에서 하나둘씩 학생들이 자살합니다.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은 이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상연고는 학기당 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귀족학교'로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이 자기보다 장학생 후보 앞순위에 있는 친구들을 없애기 위해 꾸민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아이는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짓밟히기 싫으면 먼저 밟으라면서요! 저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에도 상연고의 야간자율학습 교실에는 감독교사의 신인이 울려 퍼집니다. "땀히고 싶지 않으면 땀고 일어서라.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경쟁자다.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 세상이다."



SBS 드라마스페셜 <유령>

이 시기에 청소년 드라마는 시리즈라는 형식을 띠니다. 총 네 편의 <학교> 시리즈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세 편의 <반올림>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송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청소년 드라마는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성적경쟁의 장이 되면서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지요. 소위 문제아들이 등장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겪는 방황과 일탈이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반올림3>에서는 아예 문제아들만 모아 놓은 '특별반'을 설정해 그들의 이야기만으로 꾸러가기도 합니다.

2008년 가정의 달 특집극으로 방송된 단막극 <정글피쉬>는 2년 뒤 <정글피쉬2>라는 이름으로 총 8편의 미니시리즈로 재탄생하는데, 특목고에서 벌어지는 시험지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학생들의 갈등을 그려냅니다. 제복처럼 이들에게 학 교는 악육강식의 원리만이 작동하는 "정글"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런 학교가 주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에는 <공부의 신>, 2011년과 2012년에는 <드림하이> 1과 2가 각각 방송되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판타지의 성격이 강한 드라마였는데, <공부의 신>이 명문대 입학에 위한 경쟁에서, <드림하이>가 요즘 최고의 직업이라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두 편 모두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 성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짓는 현실을 비꼬며, 각고의 노력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라.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경쟁자다.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 세상이다."

드라마 속 청소년들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너무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 자녀만큼은 잘 될 거라며 애써 외면한 교육의 문제가, 이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버린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교육의 문제는 "아킬레스건"과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로 생기는 부모들의 갈등,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그 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 신앙보다 학교성적을 앞세우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바라는 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 중 교사의 입으로 흘러나온 "남을 밟고서라도 경쟁에 이겨야 한다"는 말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의 기도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그 "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배움을 할 수 있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이 들리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르침을 포장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연문영성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발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